

朝鮮 中期 史官의 國防意識

- 『明宗實錄』 史論을 중심으로 -

金 慶 洙

(청운대 교양학부 교수)

1. 머 리 말
2. 『明宗實錄』의 編纂과 編纂官
3. 『明宗實錄』 所收 史論의 內容
4. 史官의 國防意識
5. 맺 음 말

1. 머 리 말

조선 명종조(1545~67)는 사화기에서 봉당기로, 정국주도권이 훈구에서 사림으로 이행하는, 즉 조선전기에서 후기로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잘 보여 주고 있다.¹⁾ 따라서, 정치와 사회, 군사와 외교, 사상과 문화 등 명종조 역

1) 명종의 재위기간(1545~67)에 해당되는 16~17세기를 “사림의 시대”로 부르면서,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과도기인 “조선중기”로 구분하여 부르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에 대한 분석은 조선 중기사를 밝히는 작업의 하나가 된다. 특히 관료제 운영과 관련하여 3사와 함께 언론정치 활성화에 기여했던 史官의 활동을 분석하는 것도 이 시기의 사상적 및 정국운영 이념과 원리를 살피는데 요긴하다. 더욱이 사관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실록에는 이들의 현실의식이 반영된 사론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관의 당대사 의식은 물론, 관료층²⁾의 시대사조까지 유추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史官³⁾은 전임사관과 겸임사관으로 구분되며, 이중 예문관 소속의 奉敎(정7품, 2인)·待敎(정8품, 2인)·檢閱(정9품, 4인) 등 8인을 전임사관이라고 한다. 이들은 관료 조직의 말단이었기 때문에, 정책의 입안과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치가 이루어지는 어느 곳이든 참여하였고, 군주의 언행 및 시정사 일체를 기록으로 남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록한 내용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역사 그 자체였으며, 당대사의 이해에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었다. 더욱이 도덕적 목적과 가치기준을 바탕으로 하였던 점에서 볼 때, 기록 자체의 신성성과 존엄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사관에 제수된 인사들은 萬世의 공론을 견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사로

이에 대해서는 이태진(『조선중·후기 정치사 이해의 방향』,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과 金燾(『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3), 김성우(『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정만조의 논고(『조선중기 유학의 계보와 붕당정치의 전개(1)』, 『조선시대사학보』 17, 2001.) 등 참조.

2) 사관도 현실 관료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대사를 보는 인식이 다른 관료들과 전혀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3) 史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 申奭鎬, 『朝鮮王朝實錄의 編纂과 保管』, 『史叢』 5, 1968.
 車勇杰, 『朝鮮王朝實錄의 編纂態도와 史官의 歷史認識』, 『韓國史論』 6, 國編, 1981.
 車長燮, 『조선전기의 사관-직제 및 정치적 역할-』, 『경북사학』 6, 1983.
 鄭求福, 『高麗時代의 史館과 실록편찬』, 『제3회국제학술회의논문지』, 1984.
 韓祐勳, 『조선전기 史官과 실록편찬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66, 1988.
 金慶洙, 『朝鮮時代의 史官研究』, 國學資料院, 1998.
 吳恒寧, 『朝鮮初期 史官制度研究』, 고려대박사학위논문, 1998.

이 아첨하지 않는 것을 기본 자세로 삼았으며,⁴⁾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매우 높았다. “한때의 공정한 논의는 대간들의 책임이고, 만대의 사실에 대한 기록은 사관의 임무입니다. 간관들의 바른 말은 그래도 막을 수 있지만 사서에 기록된 논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⁵⁾라고 한 사관 李蕞의 고백은 존재 자체의 역사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관료들은 대간의 탄핵으로 귀양가고, 임금의 불신으로 사약을 받는 것보다도 사초(실록)에 기록되어, 후대에 褒貶되는 것을 더욱 염려했다.

이제까지 명종대의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변화와 민의 동향, 軍役 문제, 을사사화와 사화 이후 錄功된 衛社功臣 등에 대한 많은 연구⁶⁾는 이 시기의 역사와 그 성격을 이해하는데 광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4) 『中宗實錄』 卷26, 11년 8월 庚戌.

5) 『明宗實錄』 卷11, 6년 1월 壬寅.

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 참조.

李泰鎮, 「군역의 변질과 납포제의 실시」, 『한국군제사』 근세조선전기편, 1968.

禹仁秀, 「조선명종조 衛社功臣의 성분과 동향」, 『대구사학』 33, 1987.

金種洙, 「16c 甲士의 소멸과 正兵入役의 변화」, 『국사관논총』 32, 1992.

李宰熙, 「조선 명종대 “척신정치”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사론』 29, 서울대, 1993.

金 燾, 『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3.

韓春順, 「명종대 을사사화연구」, 『인문학연구』 2, 경희대, 1998.

_____, 「명종대 수렴청정기(명종 즉위년 - 8년)의 “훈척정치”의 성립과 운영구조」, 『한국사연구』 106, 1999.

_____, 「명종 親政期の 권력관계 변화와 정국동향」, 『조선시대사학보』 12, 2000.

金宇基, 「조선 명종대 정치세력과 정국동향-척신세력을 중심으로-」, 『조선사연구』 2, 1993.

_____, 「16세기 척신정치의 전개와 기반」, 경북대박사논문, 1995.

_____, 「조선 명종대 척신세력의 성분」, 『한국사연구』 93, 1996.

_____, 「조선 명종대 군신관계의 추이와 성격」, 『국사관논총』 80, 1998.

韓禧淑, 「16세기 임격정 난의 성격」, 『한국사연구』 89, 1995.

_____, 「조선 명종대 群盜의 발생배경과 활동의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10, 1999.

崔異敦, 『조선중기 사림정치구조연구』, 일조각, 1994.

朴洪甲, 「조선 명종조 忠州獄의 전개와 충주사림」, 『조선시대사학보』 17, 2001.

어 『명종실록』의 편찬 방식과 事目에 대한 연구⁷⁾는 본고의 주제를 전개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고는 직접 견문한 바의 명종조 역사를 사초로 기록하고, 시행사의 시비득실을 褒貶하였던 사관의 국방의식에 대해, 선조 초⁸⁾에 편찬된 『명종실록』의 사론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명종실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시간적으로는 조선 전기에서 중기로, 정치적으로는 훈구파에서 사림파로 정국 주도 세력이 교체되는 등 역사의 변화와 발전의 원리를 살필 수 있는 시기에 편찬된 실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종실록』에는 사론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이를 통한 사관의 현실대응의식과 군사 동원 및 군역운영체계 등 중기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신진 사류계의 국방의식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무엇보다도 왜와 여진족, 중국 등과의 외교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었고, 임진왜란이 발생되기 직전 시기이기 때문에, 군사와 관련된 논의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다음 시기에 끼친 사상적 영향 등을 살필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앞으로 『明宗實錄』 이전과 이후에 편찬된 실록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한다면, 사관의 국방의식에 대한 연속성은 물론, 시기별 동이점도 살필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선조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사류계의 국가관과 사상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韓祐欣, 『朝鮮前期 史官과 實錄編纂에 대한 研究』, 『震檀學報』 66, 1988.

8) 편찬의 주체들이 선조대의 관료라는 점에서 볼 때, 명종대 사관의 국방의식이라는 주제 선정과 논지 전개는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나 명종말 선조 초에 활동했던 관료들이 『명종실록』의 편찬관이었고, 이들이 정국을 주도했던 점에서 볼 때, 명종조 사관의 국방의식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그 의미는 단절의 면보다 연속적인 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2. 『明宗實錄』의 編纂과 編纂官

조선왕조를 건국한 사대부들은 사서의 편찬과 승유억불 정책을 기조로 한 유교문화의 보급과 유교정치이념의 확립을 통하여 고려왕조의 멸망과 조선왕조 건국의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사서 편찬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사대부들은 前代史(『고려사』와 『고려사절요』)와 建國史(『용비어천가』), 通史(『동국사략』 등) 및 건국 이후 새 왕조가 무리없이 전개되고 있음을 강조할 목적으로 당대사(실록)의 편찬에 열심이었다. 이 중에서 선왕대의 역사적 사실을 정리한 실록 편찬사업은 현재적인 의미는 물론,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 왕권 계승의 정통성과 법통성, 명분과 실리의 모든 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후계한 왕과 관료들은 실록의 당대 편찬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명종이 재위 22년 만에 薨去하자, 당대 편찬이라는 관례에 따라,⁹⁾ 『명종실록』 역시 선조 즉위 후에 곧바로 편찬이 진행되었다. 여기서 『명종실록』의 편찬 始末과 편찬관의 성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편찬에 참여한 인사들의 정치적 및 사회적 성분¹⁰⁾과 선조 초의 정치세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명종실록』의 편찬에 대해서는, 『선조(수정)실록』의 본문과 柳希春의 『眉巖日記』¹¹⁾에 소개되어 있다. 편찬과정의 개략적인 내용과 본문 기사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¹²⁾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논지의 전개상

9) 金慶洙, 「朝鮮前期 實錄 編纂에 대한 史學史的 考察」, 『조선시대사학보』 20, 2002.

10) 편찬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추후에 하고자 한다.

11) 寶物 260號로 柳希春이 작성한 11책의 日記이다. 책의 크기가 모두 다르나, 대략 39.5cm×13.5cm이다. 선조 즉위년(1567) 10월 1일부터 선조 10년(1577) 5월 13일까지의 약 10년간의 사실을 친필로 쓴 일기로 『선조실록』 편찬시 이용되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만 살피기로 한다.

『선조(수정)실록』에는 총재관 홍섭이 이황을 실록청의 당상으로 추천한다는 기사가,¹³⁾ 영의정(李浚慶)과 우의정(洪暹)의 啓請에 따라 실록청의 인원을 구성하자는 실록 편찬의 첫 단계에 해당되는 기사¹⁴⁾보다 앞에 있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편찬과정에 대한 『선조(수정)실록』의 정보는 그다지 상세하지 못하다. 이에 비해 명종 을사년에 파직되었다가 선조 초에 복직된 柳希春(1513·중종 8년~1577·선조 10년)¹⁵⁾은 자신의 저서인 『미암일기』에 편찬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즉 실록청의 설립논의(선조 2년 7월 12일), 총재관과 도청, 방¹⁶⁾ 등 실록청의 인원 편성(동년 8월 12일),¹⁷⁾ 분년 분방의 편찬원칙, 京外의 家藏史草 납입 기한, 가장사초¹⁸⁾ 납입자의 성명기입, 실록 편찬시 史庫의 위치, 각 방

12) 韓祐의 전계 논문, 115쪽.

13) 『宣祖實錄』 권2, 1년 8월 戊寅.

14) 당시 인선된 인원은 다음과 같다. 홍섭을 총재관으로, 오겸·이황·이탁을 도청 당상으로, 박충원·박순·김귀영·윤현·박응남·윤의중을 참찬관으로, 이후백을 외방 당상으로, 김난상·민기문·윤근수·유희춘을 도청 낭청으로, 이담·이충작·신응시·황정옥·이산해·구봉명·정철·이해수·신담·정언신·정사위·유성룡 등 16명을 각방 낭청으로 삼았다(『宣祖實錄』 권2, 1년 8월 己丑).

15) 本貫은 善山이고 字는 仁中, 號는 眉巖으로 海南 出身이다. 中宗 33年 別試 등과 후 史官을 역임하였고, 이후 부제학까지 지냈다. 乙巳士禍에 연루되었다가 선조 초년 해배된 뒤, 편수관으로 참여하였다.

16) 일반적으로 실록의 편찬시 실무적인 작업은 각방의 낭청이 하고, 각방 당상은 낭청을 지휘 감독하였다. 도청의 낭청은 방에서 작성한 初草를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중초를 작성하였다. 도청 당상은 낭청을 지휘 감독하였고, 총지휘와 최종 감수를 담당하였던 총재관과 함께 중초본의 체제와 문장을 통일하였다.

17) 『선조실록』과 『미암일기』의 기사는 1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보인다. “即位年稱元法”을 사용한 실록과 “踰年稱元法”을 택한 『미암일기』와의 편년 사용의 차이에서 온 결과라고 보인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전계 줄지 제3부 1장 참조.

18) 가장사초란 사관이 별도로 작성하여 집에 소장하고 있다가, 실록청 개국 후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시행사와 인물의 시비득실이 상세하게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필화사건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관으로서의 직필을 보장받기 위해서 성명 기입을 반대했으며, 대신들로서는 公論과 어긋나는 논평이 작의적

의 가장사초 정리 등이 상세하다.

유희춘의 기사를 근거로 정리해 보면, 실록청에는 총재관과 도청, 방(3개)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청(당상 3인 낭청 3인)과 각방(당상 2인, 낭청 4인)에 편성된 인원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즉 우의정 이하 전임사관까지 25인이 편찬에 참여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실록의 권말 부록에는 監館事 1인, 知館事 9인, 同知館事 10인, 編修官 20인, 記注官 17인, 記事官 20인 등 연 인원²⁰⁾ 77인이 관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명종실록』의 편찬이 진행되던 선조 초반의 정국은 낭청제의 시행, 文昭殿 논의, 乙巳削勳 논의 등으로 新進士類와 舊臣간의 갈등·대립 구도가 격렬하였다.²¹⁾ 그러나 문정왕후가 死去한 명종 20년 이후 선조의 즉위부터 사류의 성장이 비약적이었던 것에 비해, 명종조에 권력을 잡았던 인사들과 이들에게 붙어 권세를 누리던 세력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조정에서 축출되었다. 이에 따라 권신을 대신하여 사람이 정국 주도의 대안 세력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정국이 복잡하게 전개되던 선조 초엽임에도 불구하고, 『명종실록』의 편찬

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명을 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職	制	人員	任 務
總 裁	官	1	중초 검토, 문장과 체제의 통일, 正草(실록) 완성.
都 廳	당 상	3	낭청의 지휘 감독, 중초 검토
	낭 청	3	초초의 검토 및 中草 작성
房	당 상	6	낭청의 지휘 감독, 초초 검토
	낭 청	12	初草의 작성

20) 연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실록 편찬을 전후한 시기에 잦은 인사 이동이 있었으며, 편찬관으로 선발된 인사 중에도 교체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그러나 실록이 완성되고, 부록으로 편찬관을 수록할 때는 전후에 관계한 모든 인사와 교체된 인사까지 모두 수록되었기 때문에 인원수의 차이가 보인다. 실록의 편찬관에 대한 분석은 줄고(『燕山君日記의 編纂過程과 編纂官』, 『정덕기박사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1996과 『仁祖實錄의 編纂過程과 編纂官』, 『충북사학』 12, 1999) 참조.

21)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정만조의 글(『16세기사림계 관료의 붕당론』, 『한국학논총』 12, 1989)과 김항수의 글(『선조 초년의 신구갈등과 정국동향』, 『국사관논총』 34, 1992) 참조.

은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하삼도의 기근으로 실록 奉安使의 파견을 가을로 연기하자는 대간의 건의가 있었고,²²⁾ 하루 뒤 홍섬의 제의로 다시 봉안사를 파견했다는 기사²³⁾와 실록청의 신료들에게 상을 내렸다는 기사²⁴⁾ 등을 종합해 볼 때, 선조 4년(1571) 4월 20일 春秋館에서 撰進하면서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명종실록』의 권말 부록에 수록된 편찬관 77명의 성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77명의 편찬관 중에 감관사 洪暹, 지관사 吳謙·金鑑·朴忠元 등 4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류계 인사로 분류된다.²⁵⁾ 즉 추후의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명종실록』 편찬의 주체는 명종 20년 이후 선조 초에 이르는 동안 정국의 주도계층으로 성장한 신진사류들이었던 것이다. 즉 順懷世子가 死去한 후, 권신들에 의해 후사가 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德興君의 3자인 鈞을 仁順王后의 명을 받아 후사로 세운 사림계가 『명종실록』의 편찬을 주도했던 것이다.²⁶⁾

77명의 편찬관들은 모두 문과에 급제했으며, 史官 역임자가 37명, 『중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1명이다. 문과의 급제 여부, 전임사관 역임과 실록 편찬의 경험 유무 등이 편찬관 편성의 중요한 선발 요건이었음이 확인된다.²⁷⁾

편찬관의 대부분이 선조 초의 정국주도 계층이었던 사류계 인사라는 점

22) 『宣祖實錄』 卷5, 4년 4월 辛酉.

23) 『宣祖實錄』 卷5, 4년 5월 癸亥.

24) 『宣祖實錄』 卷5, 4년 5월 乙丑.

25)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성과와 편찬관들의 관력 및 정국운영 과정에서의 처신과 태도를 근거로 하였다. 명종 초에 급제하여 일찍부터 관계에 진출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윤원형·이량 등 권신과 대립했던 경우에는 사류계로 분류했다. 여하튼 선조 초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의 의미가 없을 것이나, 억측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본다.

26) 신진사류들은 명종비의 동생인 심의겸과 사류에 우호적인 영상 이준경을 통해 鈞을 후사로 삼았다.

27) 실록 편찬관의 성분과 성향에 대해서는 전개 줄지 제3부 2장 참조.

에서 볼 때, 이들의 서술태도와 서술의식이 『명종실록』 편찬시 크게 반영되었음과 사론의 작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설의 확신을 가늠케 한다.²⁸⁾ 훈신과 척신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비평 사론이 상당한 분량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도 동일한 맥락이다.

『명종실록』에는 다른 실록과 마찬가지로 국정 운영과 관련된 시행사 및 군주로부터 유생에 이르기까지 인물의 是非得失에 대한 포괄 논의가 광범하고 구체적이다. 이제 『명종실록』에 수록된 사론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3. 『明宗實錄』 所收 史論의 內容

유교 이념의 구현, 君臣간의 조화를 통한 왕도정치의 구현을 이상으로 삼았던 조선왕조는 서연과 경연을 통하여 세자와 군주의 유교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유교 경전에 정통한 인사들을 시험보고 관료로 선발하였으며, 사가독서 및 重試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하여 유교이념의 재교육과 유교정치체제의 확립에 진력하였다. 이러한 정치 운영의 완성을 위하여 언론 3사의 활동을 보장하여 言路를 개방하였으며, 군주와 신하 중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언론 정치의 활성화를 통하여 합의에 의한 정책 실현을 왕도정치의 구현으로 보았던 조선왕조에서는 군주와 대소 신료의 언행 및 時政事를 직서하였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유교적 가치 기준에 따라 褒貶하였던 사관의 활동 역시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제 『명종실록』에 수록된 사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8) 선조 5년 4월, 실록의 편찬이 완성되고, 관진할 때까지는 구신계 인사들이 당상 등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편찬의 실무 및 사론의 작성은 방과 낭청에 편성된 사류계 인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명종실록』에는 부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42편²⁹⁾의 사론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史論이 처음 수록된 것은 『정종실록』(1편)이다. 이후 『단종실록』에 4편, 『세조실록』에 5편, 『예종실록』에 2편 등 그다지 많이 수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종실록』(629편)부터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림파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건국 이후 錄功과 문과급제, 國婚 등을 통하여 권력과 부를 독점했던 훈구파 주도의 정국운영에서는 명분론이 붕괴되고, 정치적 非理 등이 만연되었다. 훈구파에 의한 정치운영에서 야기된 문제는 사림파의 학문과 사상, 유교정치이념과는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성종 이후 사림파가 사관직에 진출하고, 실록 편찬관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사론으로 작성하여 실록에 수록하였던 것이다.

성종대 사림파의 사관직 진출 이후 조성되기 시작한 비판적인 인식은 조선중기로 이어졌다. 『성종실록』 이후 편찬된 실록에 공통적으로 사론이 많이 수록된 것은 사림의 사관직 진출과 직결된다. 이러한 경향은 명종 20년 이후, 훈·척신을 대신한 신진사류계로 계승되었으며, 이들이 『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면서 사론 작성시 그대로 반영했던 것이다. 『명종실록』에 수록된 1442편의 사론을 내용별로 분류해 보기로 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종실록』에 수록된 사론에는 인물과 조정의 기강, 재변, 풍속 및 사상적인 부분과 관청에 대한 것 등 정국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괄되어 있다.

史官은 지위의 고하와 권력의 유무,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하여 자신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왜곡하여 기록하지 않는 원칙을 지켰다. 이러한 원칙과 왕도 열람하지 못한다는 비밀주의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시비득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감없이 褒貶할 수 있었던 것이다.

29) 한우근은 전개 논문에서 1449편으로 파악하여, 필자가 확인한 것과 7편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논지의 전개상 큰 변수를 주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필자가 확인한 1442편의 사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표 1> 사론의 내용별 분석³⁰⁾

내 용	편 수	내 용	편 수	내 용	편 수	
인물(포/핍)	107/881	민 생	27	경연·서연	12·4	
조정 기강	115	의례	명분	17	내 수사	3
			예법	33	홍 문 관	4
인 사	51	윤 리	6	비 변 사	2	
인사청탁	19			대간	사간원	8
과거	문무과	5	사헌부		13	
	승 과	6	兩 司		32	
군사(臺帳)	18	외 교	19	성 균 관	2	
대 신	53	재 변	79	승 정 원	15	
				사상	억불	35
내 시	26	이단	11		의 금 부	1
무신(장수)	9	수 령	7	장 예 원	1	
신상필벌	44	풍 속	29	찬 집 청	1	
		기 타	7	춘 추 관	3	
합 계 : 1,711				호 조	1	

<표 1>에서 보듯이, 褒論보다 貶論이 월등하게 많다. 이는 정국 주도 계층의 정치 운영이 사론 작성자의 가치 기준과 상치되기 때문이다. 즉 성리학적 理想論에 입각한 정치이념과 현실 정치 운영에서 오는 괴리감이 컸던

30) 사론은 모두 1422편이나, 내용별로 구분하면 1711편이다. 이는 1편의 사론에 인물평이 2인 이상 경우는 물론, 1편의 사론에 여러 건의 사안을 논평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내용의 구분 역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필자의 편의에 따랐음을 밝힌다. 편수 항목의 숫자는 “핍론: 포론”을 의미한다.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것은 구분이 없는데, 대체로 비평적인 입장이 컸던 핍론에 가깝다.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급제 이후 오랜 동안 정치 현장에서 활동한 보수 성향의 원로 관료들과 급제한지 얼마 안되어 官歷이 일천한 개혁 성향의 신진 인사와는 정국을 보는 시각과 안목이 다를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결국 사론을 통하여 포폄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주로 명종 20년 이전까지 권력을 쥐고 있었던 勳·戚臣에 대한 논평이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사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명종을 비롯하여 3정승으로부터 유생에 이르기까지 인물에 대한 논평이다. 모두 221명이 988편에 포폄되어 있다. 인물의 현부와 득실, 처신과 관련하여 포찬된 것이 107편, 폄하된 것이 881편이다. 명종(평/포; 145/38)은 물론이고, 선조의 外祖인 鄭世虎(1486~1563)³¹⁾에 대해, “탐욕스럽고 비루하다”, “시정배이며, 행동이 좀스럽다” 등(7편)³²⁾으로 폄하하였다.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경우라면, 현재적인 지위의 고하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던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것이다. 논평된 221명의 인물 중 10편 이상으로 포폄된 인물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10편 이상으로 포폄된 인물은 19명이고, 논평은 718편

<표 2> 10편 이상으로 논평된 인물

성명	편수	성명	편수	성명	편수	성명	편수
김명윤	16/0	심련원	22/0	이 기	74/0	진부창	16/0
명종	145/38	심통원	36/0	이량	56/0	허자	10/0
문정왕후	34/0	윤개	25/0	이준경	28/3	홍섬	7/5
보우	19/0	윤원형	101/0	정사룡	15/0	황현	10/0
상진	27/0	윤춘년	19/0	정순봉	12/0	계	672/46

31) 정인지의 손자로, 그의 딸이 중종과 창빈 안씨 사이에 태어난 덕흥군(1530~59)과 혼인하여 하원군과 하릉군, 그리고 선조를 낳았다.

32) 『明宗實錄』卷6, 2년 8월 庚辰 및 동 권10 5년 5월 甲子, 권13 7년 5월 정해, 동 9월 壬午, 권16 9년 3월 庚午, 권25 14년 3월 癸巳, 4월 癸卯 등.

이다. <표 1>의 항목과 비교해 볼 때, 전체 221명 중 9%에 해당되지만, 편수로는 50%에 가깝다. 논평된 인물의 성향이 주로 명종 20년 이전에 정국을 주도했던 훈신들인 점에서 볼 때, 선조 초에 정국을 주도했던 신진사류계의 비평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즉 명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한 뒤, 수렴청정했던 문정왕후와 문정왕후의 후원을 바탕으로 을사사화를 주도하면서 공신으로 책봉되었던 윤원형, 이기 등 외척세력, 문정왕후의 비호를 받은 보우,³³⁾ 그리고 명종이 윤원형을 견제할 목적으로 등용시킨 이량 및 이량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인사들에 대한 비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물에 대한 논평이 다른 사항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은 역사의 동인을 인간 중심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다른 실록과 마찬가지로 임금에 대한 논의가 많고, 신하와의 상관관계를 많이 거론하고 있다. 이는 정국운영 과정에서 군주의 절대권과 정국 장악력이 중요한 변수였음을 의미하며, “君君臣臣” 등 유교 명분론에 입각한 정치질서와 正名思想의 확립을 중시하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재변을 天譴으로 인식함으로써, 天人感應說의 성리학적 역사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물에 대한 비평과 함께, 조정의 기강 및 人事의 비리와 청탁문제, 윤리와 재변 등의 논평이 많다. 특히 조정의 기강과 관련된 논평이 많은 것은 척신 주도의 정국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인사들은 모두 권신이었으며, 이들에 의해 주도되던 인사청탁 등을 구체적으로 비평하고 있는 것이다. 관청 중에는 공론정치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대간이 집중적으로 비평되었다. 사람이 추구하던 언론의 활성화와 공론정치의 정착에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론의 구체적인 성향을 이해하기 위해, 정국의 변화와 정국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즉위 이후 8년까지의 문정왕후 수렴청정기, 8년 7월 이후 문정왕후가 사망하는 20년 4월까지의 명종 친정기, 20년 5월 이후 명종이 薨去하는 명종 말기 등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³⁴⁾ 먼저 각 시기의 정

33) 명종 20년 6월 제주로 귀양갈 때까지 숭불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비판되고 있다.

국 전개 및 정국 주도 계층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³⁵⁾ 해당 시기에 작성된 사론의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먼저 문정왕후의 수렴청정기에는 문정왕후와 윤원형 등 척신들이 권력을 확대·강화하고, 상대 세력에 대한 제거에 혼신을 다하던 시기였다. 즉 을사사화 자체의 대의명분 및 정통성 결여를 호도하기 위한 고변과 옥사가 연이어 나타났다. 즉위년 8월의 을사사화,³⁶⁾ 2년 9월의 양재역 벽서사건,³⁷⁾ 3년 2월의 안명세 사옥,³⁸⁾ 동 10월의 『무정보감』 편찬,³⁹⁾ 4년 4월의 이홍윤 옥사⁴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고변과 옥사로 많은 신료들이 제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관원의 부족 상태가 나타날 정도였다.⁴¹⁾ 집권층 내부의 자기 분열 및 자기 도태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사화의 주동자인 윤원형과 나경 중심의 權臣政治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작성된 사론은 모두 426편이다. 문정왕후와 윤원형 등 척신의 정국 주도, 을사사화의 시비와 관련된 논평이 많다. 시기별로는 명종 5년(13편)⁴²⁾이 적고, 6년(78편)⁴³⁾과 7년(72편)이 많으며, 다른 해는 거의 비

34) 시기 구분은 선행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임의로 구분한 것이다. 즉 논지의 전개를 위한 편의에 따른 것이며, 특별한 의미의 부여나, 이전 연구 성과와 다른 해석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35) 명종조 정국 전개 과정과 각 시기의 정국 주도 계층 및 성격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한춘순, 「명종 친정기의 권력관계 변화와 정국동향」, 『조선시대사학보』 12, 2000과 김돈, 『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에 잘 정리되어 있다.

36) 『明宗實錄』 卷1, 즉위년 8월 壬子.

37) 『明宗實錄』 卷6, 2년 9월 丙寅.

38) 『明宗實錄』 卷7, 3년 2월 己未.

39) 『明宗實錄』 卷8, 3년 10월 丁巳.

40) 『明宗實錄』 卷9, 4년 4월 庚申.

41) 『明宗實錄』 卷7, 3년 3월 壬寅 및 권3, 원년 3월 庚午.

42) 1월과 2월, 4월, 윤6월, 8월부터 11월까지 한편의 사론도 작성되지 않았다. 윤6월과 11월을 제외하고는 본문의 기사 내용이 다른 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략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론이 적은 것은 10월에 『중종실록』 및 『인종실록』이 완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선왕의 실록을 완성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논평이 많지 않은

숫하다.

대소윤의 대립과 문정왕후 및 윤원형의 정국 주도를 비평하는 논평⁴⁴⁾과 소윤계의 임백령, 이기, 정순봉, 허자 등에 대한 비평⁴⁵⁾이 많다. 정순봉의 사망시, “李芾와 함께 나라의 명맥을 손상시킨 자이다”⁴⁶⁾라고 한 것과 이기의 사망시 “이기가 무슨 인간인가, 임금을 속이기만 하다가 죽어서야 그만 두었다”⁴⁷⁾라고 한 것을 볼 때, 사관은 을사사화 자체를 명분에 어긋난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이 시기에 발생한 災變에 대해, 정국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음과⁴⁸⁾ 문정왕후·이기·정순봉·윤원형 등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⁴⁹⁾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즉 “재변은 음이 양을 협박하고 신하가 임금을 박해하는 상징이다. 이는 윤원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⁵⁰⁾라고 하면서, “군약신강”의 현실 정치 및 척신계 주도의 정국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정사는 권세와 뇌물에 의해 좌우된다”⁵¹⁾라고 하여, 신상필벌이 불공정하고 작의적임과 청탁에 의한 人事 행정의 난맥상을 비평한 것도 척신계 세력의 비리가 많았음을 강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불교 숭상과 관련해서는 4년 7월 이후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보우의 처벌을 요청하지 않은 대간이나,⁵²⁾ 선교 양종의 복설,⁵³⁾ 승불 행사를 방관한 대신,⁵⁴⁾ 주지 임명,⁵⁵⁾ 승과 실시⁵⁶⁾ 등에 대한 비평은 물론, 빈번한 재변을

것으로 짐작된다.

43) 명종 6년과 7년에는 빈번한 재변과 윤원형, 윤개, 이기 등 대신, 불교 행사 및 승불에 대한 논평이 많다.

44) 『明宗實錄』 卷1, 즉위년 7월 丁卯, 동 戊辰, 동 8월 乙巳, 戊午 등.

45) 『明宗實錄』 卷1, 즉위년 8월 壬子 등.

46) 『明宗實錄』 卷7, 3년 4월 丙寅 등.

47) 『明宗實錄』 卷13, 7년 4월 庚戌.

48) 『明宗實錄』 卷3, 1년 2월 庚子, 권5, 2년 4월 丁酉 등.

49) 『明宗實錄』 卷4, 1년 11월 癸未, 동 권10, 5년 3월 丙戌 등.

50) 『明宗實錄』 卷14, 8년 1월 戊寅.

51) 『明宗實錄』 卷5, 2년 6월 癸巳.

52) 『明宗實錄』 卷9, 4년 9월 丙申.

53) 『明宗實錄』 卷10, 5년 12월 甲戌.

승불태도와 연관⁵⁷⁾시킬 정도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안으로는 문정왕후가, 밖으로는 윤원형이 사람을 죽이고 해독을 끼치고 있다. 인심을 등지고 불교를 받들 뿐이다”⁵⁸⁾라고 논평하는 등 당시 불교의 성행과 집정자들의 승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특히 역대 군주의 승유억불 사례를 들면서 종묘 사직을 지켜 太平之治를 이루고, 彝倫을 지켜 풍속을 바르게 하였던 때가 종종대였음과 이 시기를 교훈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평은 보우의 등장과 함께 활발해졌는데, 당시 사관은 명종조 승불의 단서를 문정왕후와 보우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안명세 사옥에 대해서, 사관 안명세의 처신이 옳았으며, 이를 밀고한 한 지원의 잘못이 크다고 보았다. “간사한 무리들이 권세를 잡고 안명세는 이미 처형하였고, 조박과 손홍적을 귀양보냈으니, 나라 일이 참으로 가슴아프다”⁵⁹⁾ 혹은 “사관을 폄박하고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논평⁶⁰⁾함으로써, 소윤계와 정치적 입장을 같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무정보감』의 편찬에 대한 논평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윤원형 등이 을사년 이후의 원한과 울분을 가라앉히고, 시비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기도된 것⁶¹⁾이라고 혹평하였다. 이홍남의 고변과 옥사⁶²⁾ 역시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⁶³⁾

둘째, 명종의 친정이 이루어진 8년 7월 이후, 문정왕후가 사망한 20년 4

54) 『明宗實錄』 卷11, 6년 1월 丁巳.

55) 『明宗實錄』 卷11, 6년 6월 癸酉.

56) 『明宗實錄』 卷13, 7년 2월 丙寅.

57) 『明宗實錄』 卷11, 6년 2월 戊辰.

58) 『明宗實錄』 卷13, 7년 3월 戊申.

59) 『明宗實錄』 卷7, 3년 2월 乙丑.

60) 『明宗實錄』 卷7, 3년 2월 辛酉.

61) 『明宗實錄』 卷8, 3년 10월 丁巳.

62) 『明宗實錄』 卷9, 4년 4월 丁巳條 이후 5월 己丑까지의 한 달여 기사는 거의 이홍남 고변과 옥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을 정도이다.

63) 『明宗實錄』 卷9, 4년 丁巳 및 庚申 등.

월⁶⁴⁾까지이다. 이 시기는 외형상으로 명종의 친정이 전개되었으나, 문정왕후의 영향력이 여전히 컸고, 윤원형 역시 권신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명종이 이량을 등용시켜 “군약신강”의 질서를 타파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정국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윤원형에 필적하는 또 다른 권신을 낳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말았다. 즉 명종의 친정은 명분뿐이었으며, 여전히 훈·척신 주도의 정국이 전개될 뿐이었다.

이 시기에 작성된 사론은 모두 853편이다. 이중 명종 8년 7월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둔다고 하였을 때의 논평에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둔 것은 다행이며, 그가 청정한 7~8년 간은 공포시기였고, 불교를 신봉했을 뿐이다”⁶⁵⁾라고 한 것을 보면, 문정왕후와 윤원형 등 소윤계와 사류계 출신 사관의 정치적 입장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조광조를 제거한 중종의 처신을 비판하고 기묘피화인⁶⁶⁾ 및 사화의 주동자 남곤과 심정,⁶⁷⁾ 중종 비 신씨의 폐위를 주도한 박원종에 대한 비평,⁶⁸⁾ 사화로 인하여 선비의 사기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⁶⁹⁾ 조광조의 신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⁷⁰⁾ 등 기묘사화에 대한 시비논변이 본격화되었다. 이와 함께, 을사사화의是非에 대한 논평⁷¹⁾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새 정치를 한다면서 윤원형이 권력을 쥐고 있고, 이황이 말단으로 노수신이 여전히 유배되어 있는 것은 잘못이다”,⁷²⁾ “정몽주는 동방성리학의 창시자이고 문장과 충의가 후세에 모범으로 될만하니, 사당을 짓고 서원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⁷³⁾ “김인후는 재주가 있고, 성리학에 조예가 깊

64) 『明宗實錄』 卷31, 20년 4월 壬申.

65) 『明宗實錄』 卷15, 8년 7월 丙辰.

66) 『明宗實錄』 卷16, 9년 3월 丙辰.

67) 『明宗實錄』 卷16, 9년 3월 丙辰.

68) 『明宗實錄』 卷23, 12년 12월 丙戌.

69) 『明宗實錄』 卷17, 9년 10월 乙未.

70) 『明宗實錄』 卷25, 14년 12월 戊戌.

71) 『明宗實錄』 卷15, 8년 7월 己未 등.

72) 『明宗實錄』 卷15, 8년 7월 辛酉 등.

었다”,⁷⁴⁾와 김안국,⁷⁵⁾ 조식에 대해 포찬⁷⁶⁾하는 등 사림계 인사들이 정계에 서 배제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들의 정계 진출에 대한 배려와 학문과 사상, 처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이 시기 사론의 특징이다. 이는 명분과 의리가 붕괴되는 현실을 경계하는 禮와 관련된 논평,⁷⁷⁾ 소학 교육의 실시와 학교 교육의 장려에 대한 논평⁷⁸⁾ 등 유교 교화의 실천성으로 이어졌다.⁷⁹⁾ 이와 관련하여 선비의 기풍을 진작시킬 방안,⁸⁰⁾ 경연관과 서연관의 자질⁸¹⁾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기하기도 하였다.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시의 발호를 경계하면서,⁸²⁾ 내수사의 횡포가 내시에 의해 자행되는 것은 言路가 막혔기 때문⁸³⁾이라고 보았다. 공정하지 못한 과거시험⁸⁴⁾과 인재선발의 불공정성,⁸⁵⁾ 법은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형벌은 백성의 욕심을 막는다 것이므로 법 집행은 공정해야 함⁸⁶⁾을 논하였다.

재변과 관련된 논평 역시, “근일의 재변은 소인이 권세를 부려 조정의 법을 뜯어고치고 첩의 자손에게 벼슬길을 주어 명분을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나라의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⁸⁷⁾라고 함으로써, 수렴청정기의 사론과 마

73) 『明宗實錄』 卷16, 9년 6월 癸未.

74) 『明宗實錄』 卷15, 8년 7월 甲子 등.

75) 『明宗實錄』 卷17, 9년 9월 癸丑.

76) 『明宗實錄』 卷19, 10년 11월 庚戌 등.

77) 『明宗實錄』 卷17, 9년 11월 庚申.

78) 『明宗實錄』 卷19, 10년 11월 壬午 및 癸未 등.

79) 『明宗實錄』 卷21, 11년 7월 丙寅.

80) 『明宗實錄』 卷22, 12년 1월 庚辰 등.

81) 『明宗實錄』 卷28, 17년 2월 己卯 및 동 卷29, 18년 3월 丙申.

82) 『明宗實錄』 卷17, 9년 7월 戊辰.

83) 『明宗實錄』 卷20, 11년 2월 庚子.

84) 『明宗實錄』 卷27, 16년 4월 戊戌.

85) 『明宗實錄』 卷27, 16년 4월 乙未 등.

86) 『明宗實錄』 卷29, 18년 6월 乙卯.

87) 『明宗實錄』 卷17, 9년 12월 乙未.

찬가지로 척신계 주도 하에서 야기된 정국의 난맥상을 논평하였다.

이 시기에도 수렴청정기와 마찬가지로, 인사 청탁 및 승불, 인물의 시비 득실에 대해 논평하였다. 다만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강 자체가 붕괴될 것임을 경계하는⁸⁸⁾ 등 언로의 개방과 관련된 논평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명종이 윤원형을 견제할 목적으로 등용한 李樾과 이량을 추종하는 인사들에 대한 논평이 많아지는 것도 주목된다. 특히 문정왕후의 사망시에 작성된 논평은 사관들의 현실인식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임종에 임해서 문정왕후가 불교를 숭상하도록 한 일과 윤백원의 귀양지를 가까이로 옮겨줄 것을 요청한 언문 교서를 혹평하면서, 죽음에 이르러서도 불교 및 간신을 옹호한 점, 승불, 내시 우대, 내수사 확충 등으로 신상필벌이 무너진 것은 문정왕후로 인해 야기된 것⁸⁹⁾이라고 하는 등 극단적인 혹평을 주저하지 않았다.

끝으로 문정왕후가 사망하고, 척신을 대표하는 윤원형이 사망한 20년 5월 이후 명종의 薨去까지이다. 이 시기는 훈·척에서 사림으로 정치세력이 재편되면서 명종 초에 발생한 각종 고변과 옥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피화자에 대한 신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과거 정치의 청산은 물론, 李恒·成運 등이 6품직에 제수된 것⁹⁰⁾을 계기로 새로운 정치 세력(사림)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즉 사림세력이 정계에 다시 등장하는 때였다. 더욱이 재위 22년 만에 명종이 흥거하자,⁹¹⁾ 영의정 이준경이 仁順王后의 명을 받아 하성군을 후사로 정하였다. 하성군을 직접 지목한 인순왕후 심씨와 建儲 문제에 자문을 하였던 沈義謙의 沈氏 일문과 이준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림 세력의 정치적 입장이 강화되었으며, 이후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통치구조·정국 운영 방식 등이 나타나면

88) 『明宗實錄』卷22, 12년 1월 甲申.

89) 『明宗實錄』卷31, 20년 4월 壬申.

90) 『明宗實錄』卷33, 21년 6월 庚辰 및 동 7월 戊申.

91) 『明宗實錄』卷34, 22년 6월 辛亥.

서, 권력 구조의 개편과 함께 새로운 권력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작성된 사론(163편)은 문정왕후의 죽음과 함께 축출되어 사거한 윤원형⁹²⁾과 정난정⁹³⁾ 문정왕후로부터 융성한 대접을 받은 보우 등 불교⁹⁴⁾에 대한 혹평과 을사년의 피화자에 대한 논평⁹⁵⁾이 많다. 재변에 대한 논평도 여전히 많이 작성되었으며, 人事의 문제점과 심통원과 심전 등 외척계 인사의 정국 주도에 대한 논평이 이전과 비슷한 분량으로 작성되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각 시기의 사론은 비평의 강도만 약간씩 다를 뿐, 포폄의 대상이 되는 사안과 인물은 대체로 유사하다. 그리고 재변을 天譴으로 인식하는 등 天人合一·天人感應의 전통시대 유교관도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4. 史官의 國防意識

앞장에서 명종조를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작성된 사론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제 군사 및 국방, 외교와 관련된 사론을 중심으로 사관의 국방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주국방은 인간의 투쟁의 역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즉 조정의 관료는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 생존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였다. 『명종실록』에는 군신간의 격렬한 논의는 물론, 시골 유생의 상소문까지 상당한 분량의 군사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외교문제와 빈번한 외침, 백성의 군역 동원을 위한 軍士臺帳 작성, 군율 체계의

92) 『明宗實錄』卷31, 20년11월 辛亥.

93) 『明宗實錄』卷31, 20년 10월 乙酉.

94) 『明宗實錄』卷32, 21년 4월 壬申.

95) 『明宗實錄』卷31, 20년 10월 戊辰.

정립 등 광범한 논의와 합의 및 결렬 사항들의 兵政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冒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문의 기사보다는 사론에 반영된 내용을 근거로 국방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의 기사 중에서 일부를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 사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먼저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군사 관련 논평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표 3>에서 보듯이, 전체 1442편의 사론 중 군사와 관련된 것은 88편(6%)으로 미미한 편이다. 이는 명종조에 국제 관계의 긴장이라든가, 전쟁 등 이민족과의 대립·갈등 구도가 그다지 많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군주를 비롯한 조정 중신들의 권력 장악 및 정계 구조의 재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으며, 군사와 국방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권력계층의 이합집산에 대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88편의 사론 중 9년, 10년, 12년에 작성된 것만 66편(71%)이다. 부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일반 사론의 편수(9년:135편, 10년:93편, 12년:130편)도 다른 해에 비해 많다. 우선 명종 9년에는 여진족의 造山堡 침공이 있었고,⁹⁶⁾ 변방에서의 크고 작은 침략으로 비변사 회의도 많았다. 10년에는 을묘왜변이 발생했고, 自道防禦體系의 논의 및 비변사의 상

<표 3> 군사 관련 논평

재위년	편수	재위년	편수	재위년	편수	재위년	편수
1	4	10	29	14	2	20	2
7	3	11	1	16	2	21	2
8	3	12	20	17	1	계	88
9	17	13	1	18	1		

96) 『明宗實錄』卷16, 9년 5월 戊午.

실화, 제승방략체계의 운용 등 군사적인 논의가 많았다. 12년에는 세건선 문제 및 수군 증가 방안, 민란의 발생 등 朝野에서 사건 사고가 많았음이 확인된다. 앞장과 마찬가지로 세 시기로 나누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문정왕후 수렴청정기이다. 명종 1년 군인과 유생이 다툼을 벌였던 사건이 발생하였다.⁹⁷⁾ 이에 대해, 사관은 군인들의 행동이 잘못이었다고 하면서, 군인들이 문정왕후와李芑를 믿고 자행한 결과이며, 결국은 유교를 숭상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논하였다. 변방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역시, 현지의 수령보다는 조정에 있는 재상의 탓이라고 함으로써,⁹⁸⁾ 군사보다는 儒敎的 名分論, 변방의 일보다는 조정의 관심사를 중요시하는 현실감 떨어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적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명나라를 지성껏 섬기는 만큼 왜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갖추어 보고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⁹⁹⁾ “(명종 지시) … 오랑캐라고 하더라도 소홀히 대접해서는 안될 것이니, 한 방향의 모든 일을 예법대로 처리할 것이며, 만약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게 되면 강경히 거절할 것이다”¹⁰⁰⁾라고 하여, 소극적이고 현실 안주적이며, 명분론적 입장의 외교관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8년 5월 제주왜변이 발생한 이후에는, “…倭奴는 속임수가 많아서 그 마음을 측량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에서 우대하는 예가 더할 나위 없는데도 오히려 한없는 욕심을 품고 거짓으로 노여워하는 체하여 쓸데없는 물건을 가지고 유용한 물화를 우려내려 하며, 우리의 실정을 엿보아 불손한 말을 많이 하니, 조정을 가볍게 여겨 모욕하는 것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북쪽의 걱정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또 남쪽의 근심거리도 경계해야 한다”¹⁰¹⁾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97) 『明宗實錄』 卷3, 1년 6월 丙午.

98) 『明宗實錄』 卷4, 1년 11월 己未.

99) 『明宗實錄』, 卷15, 8년 7월 戊辰.

100) 『明宗實錄』 卷4, 1년 10월 丁亥.

101) 『明宗實錄』 卷15, 8년 7월 乙卯.

속성과 침략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보이기도 하였다.

대체로 이 시기의 논평은 외침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군사적인 문제보다 현실 정사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 사관의 국방인식 역시 군비의 증강과 군인의 확충 등을 논하기보다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논평을 내는 정도에 그쳤다. 이는 국가적인 혼란이 야기될 정도의 외침과 변경의 급박함이 많지 않았던 시대 상황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인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해당되는 실록의 본문에는 군사 상황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문제의 해결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논의가 많다. 평화가 계속될 때,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이 있듯이, “變이 소홀한 데서 일어나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근심거리인데, 편안하면 위태함을 잊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 항상 적이 온 것처럼 여기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¹⁰²⁾라고 하여, 뜻밖의 변고에 대비할 것 등이 광범하게 논의되어 있다. 兵政의 확립으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할 대책을 강구할 것¹⁰³⁾과 軍士의 사기를 높여 국정운영에 대비할 것 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본문과 사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때까지는 국가의 위기가 초래될 정도의 외침이나 내란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를 보는 사관의 현실의식이 군사문제보다 정국운영 문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명종의 친정이 시작된 8년 7월 이후에 작성된 사론에서는, 이전 시기에 비해 국방관련 논평이 상당히 많아졌으며, 내용 역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 근래에는 문무 관원들이 안일에 빠지고 놀기만을 일삼아서 모든 일이 해이해졌으며, 사족들도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 온갖 방법으로 부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사족들은 지나치게 편안하고 군졸들만이 지나치게 고초를 당해서 살 곳을 얻지 못하고 유리하고 있으니, 참혹함을 이루 말할

102) 『明宗實錄』 卷5, 2년 3월 辛未.

103) 『明宗實錄』 卷6, 2년 7월 庚午.

수 없습니다”¹⁰⁴⁾라고 한 사헌부의 제의에서 보듯이, 변방 장수들의 태도 및 직분, 명종의 군사에 대한 인식 태도, 군사 규율, 군율의 위배에 대한 논의¹⁰⁵⁾가 구체적이다. 한편 이 시기의 사론은 9년·10년·12년에 집중되어 있어 주목된다. 구체적인 성격을 구별하기 위해 각 년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9년의 경우, 8년에 작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대장의 정리 문제¹⁰⁶⁾가 상세하다. 군역대상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도피자를 찾아 군사동원 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특히 양인의 무분별한 출가를 막기 위한 조치와 무관하지 않은데, 이는 승려의 증가를 막고, 불교의 성장을 막으려는 의도가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군사 동원이나, 전쟁의 수행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철저한 징계와 형벌의 엄정한 적용을 주장¹⁰⁷⁾하는 등 군사 대처의 임시변통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築城보다 민생을 우선시 하거나,¹⁰⁸⁾ “오는 자는 막지 않고 가는 자는 잡지 않는 것이 王子의 오랑캐를 대하는 태도이다”,¹⁰⁹⁾ 혹은 “제왕은 오랑캐들을 짐승처럼 기르므로, 순종하여 굴복한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거역하여 침노한다고 노여워하지도 않으며, 나의 방비가 어떠한가만 믿을 뿐이다”¹¹⁰⁾와 같이,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호하고, 대외 관계의 유연성¹¹¹⁾을 강조하는 등 이전과 같은 내용의 논평이 없지 않다.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고려가 남쪽으로는 송나라를 섬기고 북쪽으로는 금나라를 섬긴 것을 이미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했으니, 간언을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바르지 못한 것

104) 『明宗實錄』 卷15, 8년 9월 癸酉.

105) 『明宗實錄』 卷16, 8년 6월 庚辰, 동 9년 6월 甲申.

106) 『明宗實錄』 卷17, 9년 7월 乙丑.

107) 『明宗實錄』 卷16, 9년 6월 甲戌 및 동 9년 10월 辛卯.

108) 『明宗實錄』 卷17, 9년 10월 己丑.

109) 『明宗實錄』 卷16, 9년 1월 丙午.

110) 『明宗實錄』 卷16, 9년 1월 丁未.

111) 『明宗實錄』 卷17, 9년 11월 戊申.

으로 임금을 인도해야겠는가. 비록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논은 취할 만한 것이 못 된다”와 같이,¹¹²⁾ 명분론적 입장이 여전하다.

명종 10년에 작성된 사론의 경우, 5월에 발생한 을묘왜변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표현이 구체적이다. “이때의 장수와 재상들은 국가에 변고가 없는 때에는 안일·富裕·존귀·영화의 즐거움만 누리고 장구한 계책을 세우지 않으면서 오직 탐욕을 멋대로 부렸다. … 외부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는 변방의 경보가 이미 이르렀는데도, 조정에는 대신이 없고 외방에는 어진 장수가 없어 조치해 갈 만한 계책을 내지 못하고 단지 전전공공하여 두려워하기만 하였다. …”¹¹³⁾와 같이, 변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들은 겁을 먹고, 군사들은 적진에 뛰어들지 않을 정도로 군율이 해이해진 점을 혹평¹¹⁴⁾하였다. “위엄이 사랑을 이기면 진실로 잘되고, 사랑이 위엄을 이기면 진실로 공을 이루지 못한다”¹¹⁵⁾는 『서경』의 글을 인용하여 군령은 반드시 엄명해야 하며, 군령이 엄격하게 서지 않으면 전투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하였다.¹¹⁶⁾ 왜적이 멋대로 돌격하게 된 것은 장수들이 두려워하여 움츠러들었기 때문이며, 이런 상황에서 서로 돕지 않았던 兵使와 防禦使를 혹평하였다.¹¹⁷⁾ 이러한 논평은 전쟁 수행과정에서 장수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과 다르지 않으며, 功만 챙기고 失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장수들의 위선을 비평한 것이다.

순찰사를 잘못 임명한 비변사의 전횡¹¹⁸⁾과 일본과의 협약은 믿을 것이 못되므로 선대에 맺은 약조를 폐기해야 한다고¹¹⁹⁾ 한 논평은 왜변 이후 강

112) 『明宗實錄』 卷17, 9년 7월 丙辰.

113) 『明宗實錄』 卷18, 10년 5월 己酉.

114) 『明宗實錄』 卷18, 10년 5월 壬戌 및 癸亥.

115) 『明宗實錄』 卷18, 10년 5월 辛亥.

116) 『明宗實錄』 卷18, 10년 5월 壬子.

117) 『明宗實錄』 卷18, 10년 6월 壬申.

118) 『明宗實錄』 卷18, 10년 6월 癸酉.

경 기조로 변화된 사론의 성향을 잘 보여준다. 특히 “... 싸움터에서는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것인데, 군법에 의하여 다스리지 않고 죄가 있어도 응징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자신을 잊고 칼날 아래로 돌진하려 하겠는가?”¹²⁰⁾라고 하여, 전략과 전술의 구체적인 대책까지 강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전과는 다른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군사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산과 강에 제사를 지내자고 승정원에 지시한 명종에 대해서 후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혹평¹²¹⁾하거나, 왜변의 화는 적지만, 송불은 종묘와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것¹²²⁾이라고 하여, 왜적의 침입에 따른 국가적인 변란보다 조정의 송불 태도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여전히 보이기도 한다. 아직까지는 현실적이고 실질(실용)적인 국방관과 국방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기임을 암시하고 있다.

12년에 작성된 사론은 장수의 임명이 적격자가 아님을 논한 것¹²³⁾과 함께 대 일본 관계를 논한 것이 많다. 특히 일본과의 외교 문제는 “대마도의 소망은 비록 5척의 배라고 하지만 그들의 교사스런 마음은 5척에 있을 뿐만이 아니다. 금년에 5척을 환급해 주면 명년에 또 청할 것인데 다시 허락할 수 있겠는가? 청해서 허락받지 못하면 더욱 탐독스런 마음을 품을 것이고 원망도 깊어질 것이다”,¹²⁴⁾ “... 저들이 화낸다고 또 사신을 보낸다면 단지 우리의 약점만 보이게 되어 오랑캐의 방자함을 부르게 될 것이다...”¹²⁵⁾ “... 지난해 호남의 변란에 변장이 살해되고 백성이 살육 당하였다. 그리하여 이웃 나라로 하여금 허실을 엿보게 했기 때문에, 사신이 왔을 때 교만

119) 『明宗實錄』 卷19, 10년 8월 丙子.

120) 『明宗實錄』 卷19, 10년 7월 己亥.

121) 『明宗實錄』 卷18, 10년 6월 乙酉.

122) 『明宗實錄』 卷19, 10년 7월 丙午.

123) 『明宗實錄』 卷22, 12년 1월 戊午 및 丙寅.

124) 『明宗實錄』 卷22, 12년 1월 甲戌.

125) 『明宗實錄』 卷22, 12년 1월 辛巳.

한 말을 멋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답서를 빈 객청에 유치시켜 놓은 채 공서계를 받아 가지고 가겠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다”¹²⁶⁾와 같이, 신중하고 당당하게 할 것과 유연성을 유지하되 허술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시기에 일본과의 관계가 많이 논의된 것은 을묘왜변으로 국교가 단절된 이후, 통신사의 파견과 대마도와의 관계설정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군사의 사기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장수들의 착취가 여전함을 비평¹²⁷⁾하면서, 조정의 인사들이 변방에 청탁을 하고, 변방에서는 청탁을 채우기 위해 백성에게 침탈하여 군역대상자가 근본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경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평을 보면, 왜변을 겪은 이후 사관의 인식태도가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문정왕후 사후 명종의 薨去까지의 시기에는 별다른 논평이 보이지 않는다. 문정왕후의 사후부터 문종의 흥거까지의 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되고, 무엇보다도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로 권력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明宗實錄』의 사론에 반영된 사관의 국방의식은 현실적이고 공리적이기보다, 성리학적 명분론에 치우친 경향이 강하다. 중종조 사람 조광조의 도학정치론과 지치주의, 명분론에 입각한 국방인식을 기본적으로 수용·계승하였음이 확인된다. 중종 13년 8월, 변방에 방어사 李之芳을 보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 지금 변경에 요란을 피운 것이 아닌데 몰래 군사를 내어 연습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합니다. 비록 장수를 보내더라도 사로잡지 못하면 오랑캐가 반드시 우리를 믿지 아니하고 간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 우리의 병력을 살피고 헤아려야 하며 가벼이 움직여서는 불가한데, 하물며 명분없는 거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변방의 일만 일으키고 국가의 체면만 크게 상하게 될까 염려됩니다’¹²⁸⁾라고 한,

126) 『明宗實錄』 卷22, 12년 2월 丙申.

127) 『明宗實錄』 卷22, 12년 4월 甲辰.

128) 『中宗實錄』 卷34, 13년 8월 甲申.

조광조의 입장과 태도는 명종 14년 8월, ‘…군사를 몰래 출동시켜 연습하는 것은 도적들의 피인데, 당당한 나라로서 도적들의 피를 쓰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사람 살해함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을 선현이 훌륭하게 여기었고 군사를 끊임없이 동원하여 싸움을 자주 하는 것을 옛날 역사에서 기록하였다’¹²⁹⁾라고 한 논평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즉 명종조 사관의 국방의식은 공리적이기 보다 명분적이었음을 의미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代案은 다음 시기를 기다려야 했다.

명종조 사관의 이상적이고 이념에 치우친 국방관은 선조 초에 훈신과의 권력투쟁과정에서 승리한 신진사류의 그것으로 연결되었으며, 『명종실록』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국방관은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을 겪은 이후에야 대안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즉 임란 이후 제기되기 시작했던 구체적인 국방논의는 조선후기 실학자의 군사 개혁안과 실질적인 국방관의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평화시에 전쟁을 준비하라는” 교훈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 말

이상 선조 초에 편찬된 『명종실록』의 사론을 중심으로 史官의 국방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명종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명종 20년 이후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한 신진사류들이 각종의 국가적인 변란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하는 국방관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식이 조선 후기 사상계의 주류로 정착되면서, 조선후기 국방의식의 일단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

129) 『明宗實錄』 卷25, 14년 8월 甲辰.

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한다.

조선 명종조는 정치사적으로는 사회기에서 봉당기로, 시대구분상으로는 전기에서 후기로 이어지는 과도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명종조에 대한 이해는 조선중기사의 이해와 직결된다고 본다. 『명종실록』의 편찬과정과 편찬관, 사론에 대한 분석 역시 이러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임에는 분명하다.

명종이 재위 22년 만에 薨去하자, 당대에 편찬한다는 태종조 이래의 관례에 따라, 『명종실록』 역시 선조가 즉위하자마자 편찬되었다. 편찬관은 77명이었는데,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던 인재들로 전임사관 역임자가 37명이었다. 이들 중 『중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11명이었으며, 정치적 성분으로는 4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진사류계 인물들이었다. 이는 실록의 편찬과 사론에 반영된 사상 역시 조선중기 이후 정국을 주도하였던 사류계 인사들의 명분론적 인식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의 확증을 가능케 한다. 즉 신진사류계 인사들의 사론에서 드러난 국방관이 선조대의 국방의식 주류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임진왜란 발발시 7년 간의 혹독한 시련을 겪게된 것은 현실과 거리가 먼 신진사류들의 명분론적 국방관이 개선되지 못하고, 선조대까지 그대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근거인 것이다. 따라서 이이의 10만양병설과 같은 현실적인 국방의식은 당과 싸움의 와중에서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고, 전진적인 사고와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은 다음 시기를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명종실록』에 수록된 사론은 모두 1442편이다. 사론의 경향은 성종 이후 정계에 진출한 사림의 비판적인 안목과 현실인식론이 바탕이 되었다. 이들과 사상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영향을 수수한 선조 초의 신진 사류계 인사들이 『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사론 작성시 이념적 근간으로 삼았던 것이다. 사론의 전반적인 경향이 명분론적인 입장이 강했던 근거는 이러한 요인에서 찾아진다.

사론의 내용은 인물에 대한 논평에서부터 조정의 기강, 인사 청탁, 신상 필벌, 의례, 외교, 재변 및 각 관청에 대한 것 등 국정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논의되었으며,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적 명분론과 의리론을 근본으로 하였다.

1442편의 사론 중 국방과 관련된 것은 88편이다. 전체 편수에 비하면, 적은 분량이지만, 논평 내용 중의 일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도 있어 주목된다. 특히 국가적인 변란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민생의 고통을 직접 목격한 사관들이 작성한 사론이라는 점에서 볼 때, 관료층 일반의 국방의식이라고 하더라도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

군사관련 논평이 많은 시기는 명종 9년과 10년, 12년이다. 이 시기에 논평이 많은 것은 을묘왜변과 여진족의 造山堡침입 등 변란이 발생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비변사의 상설화 논의와 비변사 회의가 자주 열렸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의 외침과 사건·사고는 물론, 재변 역시 빈번했으며, 이에 편승된 민생의 피해가 많았다.

일본과의 외교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전쟁보다는 평화 우선의 원칙 강조와 당당하고 절제있는 선린외교를 강조하였다. 조광조의 도학정치론과 명분론에 입각한 전쟁론을 수용함으로써, 현실적인 국방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결국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국방관은 임란이후 조선후기에야 가능했던 것이다.

앞으로 『선조실록』을 비롯하여 조선후기 실록의 사론에 반영된 국방관을 분석한다면, 봉당정치를 주도했던 사람계 인사들과 각 당파별 국방의식의 同異點까지 광범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를 통하여 그러한 연구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추후의 논고 진행을 기대해 본다.

주제어 : 국방의식, 사관(史官), 조선중기, 명종실록, 사론(史論)

<부록 1> 『명종실록』에 수록된 사론의 시기별 구분

在位年	편수	備考(政治 및 軍事的 주요 사건)
즉위년	56	8;을사사화·현량과 혁파 9;金明胤 고변
1 (1546)	62	2;윤원로 파면 7;임백령 卒 9;尹參 卒 10;일본사신 음 12;崔輔漢 卒
2 (1547)	36	2;정미약조 7;전국적인 흉수 9;양재역벽서사건 윤9;공신화명제. 11;『속무정보감』찬집정 설치. 12;윤원로사사.
3 (1548)	52	2;안명세사옥 4;鄭順朋 卒 6;여진족 침입 7;尹仁鏡 卒 10;속무정보감완성
4 (1549)	31	1;洪彦弼 卒 4;이홍윤옥사·權輓 卒 5;丁玉亨 卒
5 (1550)	13	2;소수서원 3;암행어사 파견 10;중종 및 인종실록 완성 12;선교양종 復立
6 (1551)	78	2;양계에 감군어사 파견. 6;普雨(判禪宗事 都大禪師)
7 (1552)	72	4;禪科설치·李岾 卒 5;제주침입 왜구격침 7;軍籍都監설치
8 (1553)	44	윤3;宋世珩 卒 5;제주 왜변 7;明宗 親政 9;경복궁 소실 11;金光準·李彦迪 卒
9 (1554)	135	5;북경무역 개시·여진족 造山堡 침공 6;비변사 회의강조 7;周世朋 卒 9;경복궁 중창 12;李鉉輔 卒
10(1555)	93	5;을묘왜변 6;왜선 격퇴 7;自道防禦체계 9;戰船시험 윤11;申光漢 卒 비변사설치. 『制勝方略』반포.
11(1556)	50	2;武科실시(왜 방지) 6;왜선 5척격파 8;정언각 卒 11;일歲遣船증가 요구
12(1557)	130	2;세건선 5척증가 4;수군 증가책결정·황해도 민란 6;임권 卒
13(1558)	40	3;대마도에 세사미(왜 방어) 6;沈連源 卒 8;함경·평안도 외의 兵馬評事폐지 10;조사수 卒
14(1559)	54	1;평안 수령 무신으로 3;임격정난 11;顯堂폐지
15(1560)	61	1;金麟厚 卒 9;임격정 한성까지 침입 12;加都致(임격정 형)생포
16(1561)	83	7;나주토호(金應蘭·金彦霖)민란 10;임격정 평산 민가 30여채 방화
17(1562)	51	1;임격정 처형 7;보우의 都大禪官敎 면직 8;李潤慶 卒 9;靖陵(중종) 천장(廣州로) 11;왜구대비 전함과 병기 정비지시
18(1563)	97	5;明에 宗系계정 요청 9;順懷世子 죽음 12;成守琛 卒
19(1564)	32	윤2;尙震 卒 5; 울산 침입왜선 나포 7;기대항 卒 10;이몽량 卒
20(1565)	26	3;8도에 암행어사 파견 4;문정왕후 卒 6;普雨 제주유배 7;태릉 조성 11;尹元衡 卒 12; 을사년 이후 괴인 사면
21(1566)	87	4;선교양종 혁파·보우 卒 9;재상어사를 황해·청흥·강원에 보냄 12;成守琛 卒
22(1567)	59	1;沈綱 卒 3;을사피화인 복관·尹漑 卒 6.28;명종 薨 7.3;河城君 즉위
계	1442	

<ABSTRACT>

A Nation Defense Consciousness of
Sakwan(史官) in the Mid-Choson Dynasty

- Focusing on the 『Myunjong-Sillok』 Saron -

Kim, Kyung-Su

The reign of Myunjong in Cho-sun Dynast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ddle year of Cho-sun in a time of transition switching over from the period of Sahwa(土禍) to that of Bungdang(朋黨). This paper analyzed them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Sakwan that contributed to activation of the press and the government with Samsa(三司), as one way of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Myunjong.

The personnel appointed to Sakwan were very proud of their duties as well as did not cringe to their superiors and make a dignity and a dissipated life by firmly maintaining the public opinion of all ages. In particular, there are the holiness and sacredness of a document itself, because Sacho(史草) they recorded was based on the moral purpose and the measure of value. In addition, if we consider that Sillok was edited on the basis of Sacho, it is likely that the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Cho-sun Dynasty through Sillok is the impartial and objective method. In Saron(史論) which finds its place in Sillok, a framework for recognizing the history of present was concentrated, so that it is valuable in that we understand the bureaucracy's general thought of the times in case that extension is contained, as well as we recognize the history of present of Sakwan.

Myungjong-Sillok was also edited immediately after Sunjo's accession to the throne according to the convention since the reign of Taejong, as Myungjong died after a reign of 22 years. The compilers were 77, who passed in mungwa(文科), and 37 had various posts in Junim-Sakwan(專任史官). Among them, 11 were those who participated in editing Jungjong-Sillok, and they were all saryu(士類) except about 4 in the political character. It is possible that the idea reflected in Sillok and Saron might reflect the justified recognition of saryuge which was leading the political situation since the middle of Cho-sun. That is to say, the viewpoint of national defence that was obvious in Saron was determined as the mainstream of national defence consciousness in Sunjo(宣祖). The going through a bitter trial for 7 year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is the foundation that shows the viewpoint of national defence of saryuge was not improved and continued on the reign of Sunjo. Therefore the advanced thought and the concrete alternative must also be waited for the next times.

The contents reflected in Saron with the volume of 1442 were extensive and far-reaching in national administration, 88 volumes associated with the national defence. Compared with the whole volumes, it is noted that there are the concrete and full particulars for solving the problems in comments, which was mainly made out on the 9th, 10th, and the 12th reign of Myungjong. At this time there are lots of civil wars such as the Japanese Invasion of 1555, Jurchen's invasion of Josanbo(造山堡) and so on. To prevent from them, the discussion and conference for permanent Pibyunsa(備邊司) were held, with the frequent disaster and the evil influence of public welfare. This Saron is, therefore, noticeable in that Sakwan witnessed these civil wars and public sufferings and recorded in detail.

If another analysis is preceded on the viewpoint of national defence reflected in Saron of Sillok in the late Cho-sun Dynasty in addition to Sunjo-Sillok, the personnel of Sarimge who was leading factional strife, and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of national defence consciousness between the parties will be clarified. It is expected that the clue for these further studies is provided on the basis of this study.

Key Words : Nation Defense Consciousness, Sakwan, Mid-Choson Dynasty, Myunjong-Sillok, Saron

K C I